

지역 소식 통

부안청년UP센터, 청년
사업 3년 연속 선정 쾌거

부안군은 부안청년UP센터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이 주최하고 (재)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주관한 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청년센터를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과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북에서 부안, 전주 군산 3개 센터가 최종 선정되었다.

부안군은 올해 '청년 날다 프로젝트 III'를 제1안에 선정되었으며,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GTC(그래픽기술자격)반과 전산회계 자격증반을 각각 개설해 총 3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집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안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 2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수성동 소방도로
개통... 시민 안전망 강화

정읍시가 수성동에 소방도로를 개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수성동 새마을금고 앞에 조성된 소방도로는 기존 도로를 확장해 만든 것으로, 총사업비 1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길이 31m, 폭 7.5m 규모로 설계돼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시는 소방도로 개설을 통해 비상시 대처 능력을 높이고, 주거 밀집지역의 안전사고대응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근 지역에서 차량 진입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함으로써 응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바탕으로, 소방도로 등 안전기반 시설 확충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출범 3주년, 정읍의 내일 완성하겠다”

이학수 정읍시장, 지속가능 발전 위한 미래 100년 책임질 청사진 제시

정읍시가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100년 책임질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변화의 흐름을 시민 삶 속에 본격적으로 녹여낼 시점”이라며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미래 성장 기반 실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선8기 지난 3년 동안 정읍시는 행정 혁신과 민생 안정,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집중하며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10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과 재정 효율화를 통해 시민 지원 정책을 강화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상 회복지원금, 에너지특별지원금, 민생 회복지원금 등은 시민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됐고 정읍형 공공배달앱 위메프는 소상공인의 수익 개선에도 기여했다.

도심 교통 인프라 개선과 도시재생, 주차 공간 확충, 수소충전소와 도시가스 확대 추진 등 도시 기반 정비에도 속도를 뒀다. 복지 분야에선 육아수당



확대, 주야간 진료 가능한 소아과내진료센터 개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등 하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을 강화했다. 더불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역 주치의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됐다.

정읍의 역사문화 자산을 세계에 알린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정읍사 달빛사랑숲과 미로분수 운영, 구절초 테마공원 전북 1호 지방공원 등록 등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학수 시장은 향후 1년간 시정 운영 방향으로 △보육·복지 강화 △도시 기반 확충 △미래산업 육성 △문화관광 융합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정읍시는 2028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과 열린도시 광장을 조성하고, 산업분야에서는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조성, 반려동물 산업 플랫폼 구축, 첨단바이오 지식산업센터 완공 등을 통해 신산업 기반을 확장한다. 또 정읍 스포츠타운·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인구소멸 대응 · 지역발전 협력’

부안군-전북개발공사, 상호 발전 협력 업무협약 체결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1일 부안군청 5층 회의실에서 상호 발전 협력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안군의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전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양기관의 긴밀한 협력 체결을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지역발전 방안 구상 및 세부사업 발굴 신규 투자 사업 공동 발굴 및 시행, 양기관 전문분야 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교류 등에 관한 사항이다.

부안군수(권익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기관이 시너지를 창출해 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개발공사 사장(김대근) 역시 “앞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5대 지역 대선공약 속도낸다

공약이행 부서 협업체계 구축... TF 구성 · 추진상황 점검

정읍시가 대통령 지역공약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부서 간 협업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5대 핵심공약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30일 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TF 회의’를 열고 공약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 기반을 다졌다. 이날 회의에는 유호연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획예산실장, 관계 부서장과 팀장 등 8개 부서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TF 구성 목적을 공유하고 각 공약별 이행현황과 향후계획, 대응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각 부서장은 해당 공약이행의 추진상황을 직접 보고하고, 문제점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을 나눴다.

시는 이번 TF 구성을 통해 △첨단의

료복합 산업단지 조성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내장저수지 주변 사계절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을 통한 도심재생 활성화 △우주방사선 신소재 테스트베드 및 국가바이오지원 평가·실증지원센터 구축 등 5대 공약이행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향후에도 정부의 국정과제 확정 시까지 매주 공약사업 이행점검을 통해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전복도와 중앙부처, 국가기관위원회 회의의 협력체계를 통해 정책과 예산 반영을 끌어내는 구상이다.

유호연 부시장은 “오늘 회의는 정읍시가 대통령 지역공약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삼성전자 착공 · 터미널 도시재생 등 핵심전략사업 속도”

심덕섭 고창군수, 취임 3주년 맞아...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 新 고창터미널 조감도 공개

심덕섭 고창군수는 1일 오전 취임 3주년 ‘직원소통의날’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씨를 뿌리고, 싹을 틔웠던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어 군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선 8기 고창군에서는 지난 3년간 도시의 미래를 바꿀 전략사업들을 쉼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터미널 도시재생사업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먼저,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는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로 올 하반기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고창신활력산업단지 18만1625㎡(축구장 25개 규모)를 매입해 자동차 기술이 접목된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또한, 낡고 오래된 터미널을 대신해 새롭게 들어서는 교통·문화 복합시설도 공개됐다. 1층에는 버스승강장과 대합실이, 2층에는 판매시설과 각종 식당들이 자리하고, 3층에는 청년문화공간과 기업체들의 회의실이, 4층에는



소규모전반선 시설이, 5층과 옥상에는 주차장이 들어선다. 맞은편 주차장 부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심 군수는 직접 조감도를 설명하며 “청년과 기업이 협력하는 시설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안 철도의 국가계획 반영’과 ‘노을대교의 착공’을 통해 군민

의 한(恨)을 풀고 고창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고창군 숙원인 ‘서해안철도 연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창군 공약 1번에 반영됐다. ‘노을대교’ 역시 총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면서 2030년 개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고창군 해양레저관광의 새 역사도 시작된다. 용평리조트는 내년부터 분양홍보관을 운영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출산 · 유아용품 전문 ‘고창아이랑’ 문열어

고창군이 1일 오후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고 지역 내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출산·유아용품 전문판매점 ‘고창아이랑(고창읍 중앙로 180)’을 열었다.

‘고창아이랑’은 고창군과 고창지역 자활센터가 협력해 자활근로사업단 형태로 운영되는 공익형 매장이자, 베넷저고리 등 신생아 내의 유아복, 출산용품 등 다양한 육아 관련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또 근로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의 지갑을 돕는 사회적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고창아이랑’은 출산을 감소와 육아 기반 약화를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기획됐다. 특히 지난해 고창읍내 출산용품 전문점이 폐업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육아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관외로 나가야 하는 불편이 지속해 왔다.

고창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자활사업 모델로 ‘고창아이랑’을 구상했다.

매장은 연면적 39㎡(약 12평) 규모로, 출산·육아 필수품 외에도 자활사업단이 직접 생산한 두부과자 등 건강한 먹거리도 함께 판매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